

ASEAN에서의 ICT를 통한 통합 노력 현황

■ 조재민* · 홍승연**

1. 개요

동남아 10개국¹⁾은 2015년까지 정치, 경제, 사회적 통합을 목표로 ASEAN 공동체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목표 실현에 있어 회원국 간 사회·경제 성장의 차이가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후반 ASEAN에 새로 가입한 CLMV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²⁾ 4개국은 다른 ASEAN 회원국에 비해 발전이 크게 뒤쳐져있다. 따라서 기존 ASEAN 회원국과 후발가입국인 CLMV 국가간의 발전 격차 해소가 ASEAN 공동체 실현을 위한 선결 과제로 되고 있다. ASEAN은 회원국 간의 발전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방안으로 ICT를 주목하고 있다. 즉, ICT를 활용하여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켜 정보격차 해소의 직접적인 발전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그리고 ICT가 가지고 올 확산효과에 힘입어 ICT 인프라를 기반으로 ASEAN 회원국의 국민, 정부기관 및 기타 모든 이해관계자를 연결시켜 정치·경제·사회 전반의 효과적인 정보공유를 구상하고 있다. 이러한 포괄적인 내부통합을 2015년도까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제협력연구실 연구원, (02)570-4313, jaeminifl@kisdi.re.kr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제협력연구실 전문연구원, (02)570-4084, syhong@kisdi.re.kr

1) 동남아 10개국: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회원국)

2) CLMV: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의 앞글자의 조합으로 ASEAN 후발회원국을 가리킴

추진하기 위해 ASEAN은 ‘ASEAN ICT 마스터플랜 2015’³⁾를 채택하고, 마스터플랜 실현을 위해 정책 및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후 본문에서는 지난 11월 필리핀에서 개최된 ASEAN 정보통신장관회의에서 도출된 공동선언문과 ASEAN의 ICT 협력에 대한 논의 추이를 바탕으로 ASEAN ICT 마스터플랜 2015의 채택 후 진행되어온 ASEAN의 통합을 위한 노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2. ASEAN에서의 ICT 협력 논의 동향

(1) 2012년 ASEAN 통신장관회의 논의 추이

2001년부터 ASEAN TELMIN회의⁴⁾에서 진행된 논의를 살펴보면, ICT 인프라 확충을 통한 ASEAN 역내 ICT 교역 확대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가 중심을 이루었다. 그러나 2007년 ASEAN 헌장(ASEAN Charter) 채택 후 ASEAN 공동체 추진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ASEAN TELMIN에서는 정보격차 해소 및 역량 개발을 위한 정책 추진 등 ICT 통합인프라 공동 구축 및 활용 방안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졌다. 이와 더불어 ASEAN 공동체 추진의 ICT 부문의 세부계획인 ASEAN ICT 마스터플랜 2015이 2011년 1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제10차 ASEAN TELMIN 회의에서 채택되었다. ASEAN ICT 마스터플랜 2015는 산업경제전환, ICT 역량배양, 이노베이션을 3가지 핵심 축으로, 인프라 발전, 인적자본개발, 정보격차 해소를 3가지 핵심 협력기반으로 삼고 있다. ASEAN의 성장 동력 발굴,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

3) ASEAN ICT 마스터플랜 2015: ASEAN 연결 마스터플랜의 ICT 부문 실천계획으로 2011년 1월 ASEAN ICT 마스터플랜 2015를 제10차 ASEAN 정보통신장관회의에서 도출하였음. ASEAN ICT 마스터플랜 2015는 ICT 경제체제 구축과 강화를 위해 활기차고 포괄적인 ASEAN 통합실현 제시의 비전 하에 작성되었음

4) ASEAN TELMIN: ASEAN 정보통신장관 회의(ASEAN Telecommunications & IT Ministers Meeting)는 연례적으로 개최되며, ASEAN 정보통신장관 및 ASEAN 대화상대국이 초청되어 ICT 협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함

및 ASEAN 통합에 기여라는 3가지 목표 하에 ASEAN ICT 마스터플랜 2015는 ICT 부문의 통합이 계획적으로 추진되는데 이바지하였다.

2012년 11월에는 필리핀 세부 막탄에서 제12차 ASEAN TELMIN회의가 ‘연결된 ASEAN: 꿈의 실현(Connected ASEAN: Enabling Aspiration)’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ASEAN은 제12차 TELMIN 회의를 폐막하며 막탄 세부 선언문(Mactan Cebu Declaration)을 발표하였고, 2015년 목표 달성을 위해 경제발전, 참여 인력확보 및 강화, 혁신, 인프라 개발, 인적자원 개발, 디지털 격차 감소 등 부문별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였다. ASEAN은 경제 통합 및 발전을 목표로 ICT 활용을 통한 협업체 내부의 무역 및 투자를 증진 시킬 수 있는 정책을 구상하고, ASEAN 10개국 간의 민관협력 모델을 수평적으로 공유함으로써 기업 및 기타 민간부분의 참여 촉진 계획을 제시하였다. 또한 인력강화에 있어 합리적 가격에 ICT를 제공하고 모바일 브로드밴드 확산을 통하여 ICT의 접근성 향상 정책개발의 필요성을 언급하였고 보편적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ASEAN 내부의 모범 사례 및 지식을 함께 공유를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와 더불어 전자거래 정책 강화 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여 ICT 응용서비스 확대를 위한 협력 계획을 내놓았다. 끝으로 ASEAN의 ICT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ICT R&D 산업 인센티브 정책수립 방안 등 ASEAN 회원국 사이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ICT 협력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내보였다.

(2) ASEAN ICT 협력 논의 동향

ASEAN에서는 TELMIN에서 이루어지는 논의와 더불어 효율적인 ICT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2008년 ASEAN 헌장에 서명한 ASEAN 10개국은 공동 규범을 도출하였고, 통합을 위해 경제 공동체(Economic Community), 정치·안보 공동체(Political Security Community) 그리고 사회·문화 공동체(Socio-Cultural Community)를 구성하여, 이 3개의 축에서 다양한 협력 프로젝트를 실행하였다. 이러한 축에서 회원국 간의 협력은 유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ASEAN은 각 회원국들의 공동 규범 준수정도 및 규범 이행 척도를 측정하는 메커니즘의 부재에 따라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ASEAN 지역의 ICT 인프라 성장과 정책적 노력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ICT 활용에 있어 각 국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 이는 국제적인 ICT 흐름과 동향을 반영하는 통합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즉, 새로운 방식과 기술을 수용하여 이를 정책적으로 반영하고 정부가 앞장서서 이행해야 한다는 요지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ASEAN ICT 마스터플랜 2015를 2015년까지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정치·경제·사회분야의 제반 활동에 ICT를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4가지 방안이 마련되었다. 첫째, 수평 및 수직적 정책협조, 둘째, 비국가활동세력(Non-state actor)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역내기구 형성, 셋째, 지역성 형성 및 지역사회구축 및 넷째, ASEAN 네트워크 관리 및 운용이 그것이다. 이 4가지 ICT 활용방안이 성공적인 통합 프로세스에 있어 ASEAN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한다.⁵⁾ ASEAN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ICT를 활용하고자 한다.

1) 제도, 네트워크 및 ICT

ASEAN은 각 회원국의 정부간 협력 및 네트워크를 긴밀하게 하기 위해서 ICT기반의 연결(Connection)을 강조한다. 특히 e-governance⁶⁾에 역점을 둬으로써 정책 및 조직을 운영하는데 중복적으로 진행되는 업무를 방지하고 좀 더 효율적인 조직 운용을 하고자 ICT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ASEAN은 국가단위 뿐만 아니라 지역 단위에서도 활발한 협동과 네트워크 구축이 진행될 수 있도록 ICT 기반을 공고히 하여 민간기업 및 시민단체를 포함하는 제도적인 혁신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오늘날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있는 인터넷 기반의 매체를 기반으로 민간분문의 정책 참여를 도모하고, 정책 블로그, ‘위키(wiki)’⁷⁾ 등의 인터넷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5) ASEAN 2.0: ICT, Governance and Community in Southeast Asia(2012)

6) e-governance: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국정운영

7) 위키(WIKI): 관리자 외의 어떠한 사람도 정보를 수정하거나 편집할 수 있는 웹페이지

정보공유의 빈도를 향상시키고자 한다. ASEAN은 정부의 정책집행과정과 정부 제공 정보의 접근성을 향상시킴으로 투명한 정부를 지향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ICT를 활용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2) ASEAN 수평적 ICT 협력

ASEAN은 회원국간의 업무가 중복 이행되는 경우의 수를 줄이고자 수평적인 ICT 협력을 제시하였다.

현재 ASEAN의 대표적인 기구로서 ASEAN 조정이사회(ASEAN Coordination Council),⁸⁾ ASEAN 공동체이사회(ASEAN Community Councils),⁹⁾ ASEAN 사무국(ASEAN Secretariat) 및 ASEAN 상주대표위원회(CPR, Committee of permanent representatives to ASEAN)¹⁰⁾가 존재한다. ASEAN 조정이사회는 ASEAN 10개국의 외교부 장관으로 구성되며 매년 2회의 회의를 개최한다. 이사회는 ASEAN 정상회의¹¹⁾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응하고, 이를 각 국에 전파하여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 밖에 ASEAN 공동체이사회, ASEAN 사무국 및 ASEAN 상주대표위원회는 ASEAN에서 이루어지는 협의사항 및 결정 사안에 대한 지원 업무 수행 및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한다. 이러한 분야별 관리기관과 이에 따른 산하기관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ASEAN은 핵심기관들의 수평적 관계 유지를 위해서 ICT 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강조한다. 특히 정보공유 및 결정과정에 있어 ICT 어플리케이션인 협력소프트웨어(collaborative software)¹²⁾ 및 그룹웨어(groupware)¹³⁾ 등의 컴퓨터

8) ASEAN조정이사회(ASEAN Coordinating Council): ASEAN회원국 외교장관으로 구성됨. 매년 2회 회의를 개최함

9) ASEAN 공동체이사회(ASEAN Community Council): ASEAN의 핵심축인 ASEAN 정치·안보 공동체이사회, ASEAN 경제공동체이사회, ASEAN 사회·문화공동체이사회로 구성되었으며, 각 부문별 장관급회의가 있음

10) ASEAN 상주대표위원회(Committee of permanent representatives to ASEAN): 각 회원국에서 파견된 대사급 상주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ASEAN 공동체이사회 및 ASEAN 부문별장관급회의의 관련 업무를 지원함

11) ASEAN정상회의(ASEAN Summit): ASEAN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ASEAN회원국 정상들이 연례적으로 모이는 회의임

프로그램을 소기관에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ICT 어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실시간 영상회의, 채팅 등 기관과 기관 및 기관내부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 시켜 비용 절감, 정보공유, 기회비용 절감 등 수평적인 업무방식을 추구하기 위함이다.

3) ICT와 포괄적 지역주의

ASEAN 통합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기관 및 ASEAN 기구들의 협력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의 비정부기구(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시민사회단체(CSO, Civil Society Organization), 기업 및 연구조직 등 민간단체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포괄적인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ASEAN 지역민들의 참여를 수반하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므로 ASEAN은 인터넷을 커뮤니케이션 및 연결 톨로 활용하여 정부 정책 논의에 국민의 참여를 도모하려 한다. 특히 앞서 언급된 정책 블로그, '위키' 등 인터넷 어플리케이션을 적극 활용하여 정보의 접근성을 개선, e-Participation을 추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e-Participation, 즉 인터넷을 기반으로 직접적인 참여를 도모하고 정보 공유를 하는 것은 ASEAN 전 지역에 통합과정을 효율적으로 확산시키고, 동일선상에서 모든 주체를 참여시킴으로 기회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4) 지역 정체성 정립

ASEAN 회원국은 지역적으로는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여 있으나, 각기 다른 종교, 문화 및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된 ASEAN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정부부처 및 기관들 사이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bottom-up' 형식의 통합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즉 정책적인 통합만이 아닌, 사회·문화 부문에 있어서도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이러한 본질적인 통합을 위해서는 ASEAN 지역민들을 통합과정에 동참시

12) 협력소프트웨어(collaborative software): 사람과 사람이 협력하여 결정과정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13) 그룹웨어(Groupware): 기업 및 기관 전산망에 전자우편과 전자 결재시스템 프로그램을 결합하여,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켜 동질감 조성을 할 필요성이 있다.

ASEAN 지역민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이용량은 한국 못지않게 높다. 특히 범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의 전자기기는 Facebook, Twitter 등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붐을 초래하였고, 이 파급효과는 ASEAN 전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ASEAN은 이러한 현상을 ASEAN의 사회·문화 통합을 추진하는데 활용하고자 한다. ASEAN 정체성을 지역민들에게 확립시키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인식한 가운데, ASEAN 정부 부처는 통합과 관련된 정책과 결정을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하여 일반 시민들에게 중계하고, 개개인의 참여를 촉진시켜 사람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빈도를 높여나가고자 한다. 특히 파급효과가 큰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는 ASEAN 회원국의 국민들에게 ASEAN의 통일된 정체성을 갖게 하는데 효과적인 톨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3. 결 어

지금까지 ASEAN에서 진행되어온 ICT 협력 동향과 ASEAN 전자통합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 추이에 대해 살펴보았다.

ASEAN은 국제적 흐름, 즉 ICT 신기술과 트렌드를 조속히 인식하고 이를 ASEAN 내부에 도입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특히 ICT 어플리케이션을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이용하여 기관별 회의 및 협력을 용이하게 하는 방안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로 ASEAN의 모든 이해관계자가 정책과정에 참여하게 하는 계획은 포괄적인 통합을 추진하고자 하는 ASEAN의 취지를 잘 반영하고 있다. 현재 각광받고 있는 클라우드컴퓨팅¹⁴⁾ 등 신 ICT 기술을 도입하여 효과적인 정보공유가 이루어진다면, ASEAN 공동체의 통합은 상부기관에서부터 수평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14)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 인터넷을 통하여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 데이터를 다양한 단말기로 접속하여 언제 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

이러한 ASEAN 통합의 노력에 한국도 ASEAN ICT 협력 사업을 통해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대화상대국(Dialogue partner)¹⁵⁾으로써 ASEAN 지역통합에 국제적인 리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ASEAN 국가들과의 긴밀한 협력은 궁극적으로 역내 개발격차 해소에 일조하고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입지를 굳혀 한국과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ASEAN 국가를 대상으로 한국이 가지고 있는 비교우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동아시아 지역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친 한국적인 외교관계를 형성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참고문헌

- 강인수 외 (2008), ‘한-ASEAN IT파트너십 강화방안 연구’, KISDI, 2008. 12.
- 홍승연 (2009), ‘ASEAN에서의 ICT 협력 논의 동향’, KISDI, 2009. 11.
- _____ (2011), ‘ASEAN 공동체 추진: ICT 부문 통합 노력을 중심으로’, KISDI, 2011. 4.
- ASEAN (2000). e-ASEAN Framework Agreement.
- _____ (2001). Ministerial Understanding on ASEAN Cooperation in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Technology.
- _____ (2005). Hanoi Agenda on Promoting Online Services and Applications to Realize e-ASEAN.
- _____ (2006). Brunei Action Plan “Enhancing ICT Competitiveness: Capacity Building”.
- _____ (2007). Siem Reap Declaration on Enhancing Universal Access of ICT Services in ASEAN: “ICT Reaching out to the Rural”.
- _____ (2008). Bali Declaration in Forging Partnership to Advance High Speed

15) 대화상대국(dialogue partner): ASEAN 주변국으로 경제, 정치·안보,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ASEAN과 협력 및 대화관계를 수립한 국가

Connection to Bridge Digital Divide in ASEAN.

ASEAN (2009). Vientiane Declaration on Promoting the Realization of Broadband across ASEAN.

_____ (2009). Status Update of the IAI Work Plan I (2002~2008).

_____ (2009). Initiative for ASEAN Integration(IAI) Strategic Framework and IAI Work Plan II(2009~2015).

_____ (2010). Master Plan on ASEAN Connectivity.

_____ (2011). ASEAN ICT Master Plan 2015.

Lallana, Emmanuel C.(2012). ASEAN 2.0: ICT, Governance and Community in Southeast Asia, 2012.

www.aseansec.org